Ⅲ. 국내보험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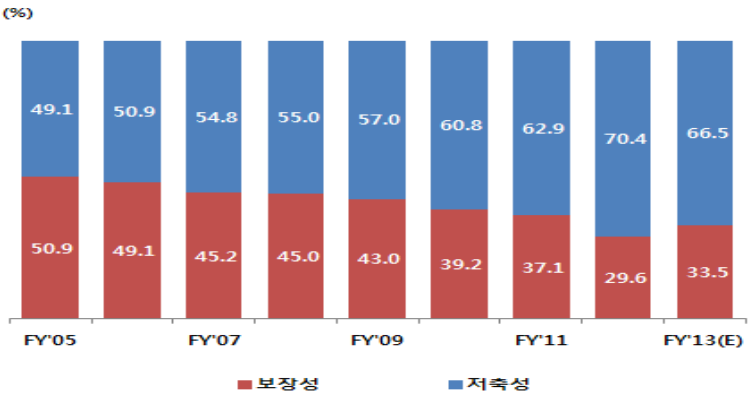
1. 생명보험

가. 개인보험

■ FY2013[22]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생존보험, 생사혼합보험 등 일반저축성보험의 기저효과로 인해 4.3%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.

○ FY2013 보장성보험은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나 FY2012 세제개편[23]의 영향으로 일시납 보험료가 급증했던 생존보험, 생사혼합보험의 수입보험료는 기저효과로 큰 폭 감소할 것임.

〈그림 Ⅲ-1〉 개인보험 보장성 및 저축성보험 비중 추이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.

22) FY2013(E)는 2013년 4월~2013년 12월 실적임.

23) 2012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2013년부터 즉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폐지되는 등 저축성보험의 세제혜택이 축소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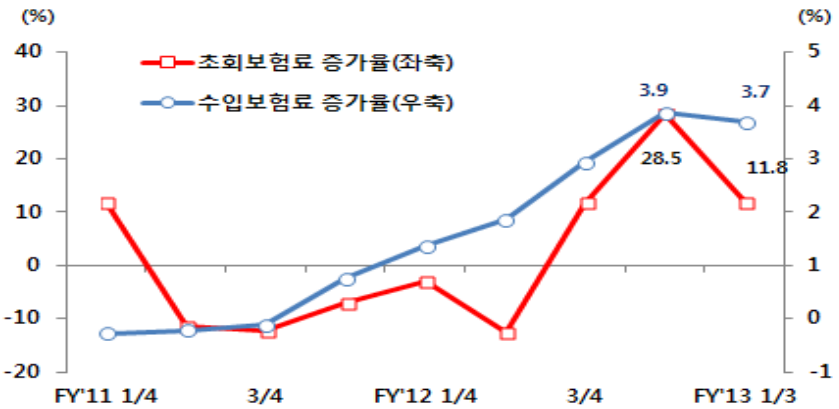
■ 2014년[24]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이 양호한 성장을 지속하고 일반저축성보험의 기저효과도 소멸되면서 FY2013에 비해 8.8%p 회복한 4.5%의 증가가 전망됨.

■ 개인보험 중 보장성보험 비중은 저축성보험의 상대적인 고성장으로 FY2005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왔으나 FY2013에는 33.5%로 전년대비 3.9%p 회복되고 2014년에도 유사한 수준을 나타낼 전망임.

1) 보장성보험(종신 · CI · 건강 · 변액종신) 현황과 전망

■ FY2013 상반기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종신보험과 질병보험의 신계약 증가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으며, FY2013 4.9%의 높은 증가율이 예상됨.

〈그림 Ⅲ-2〉 보장성보험 보험료 증가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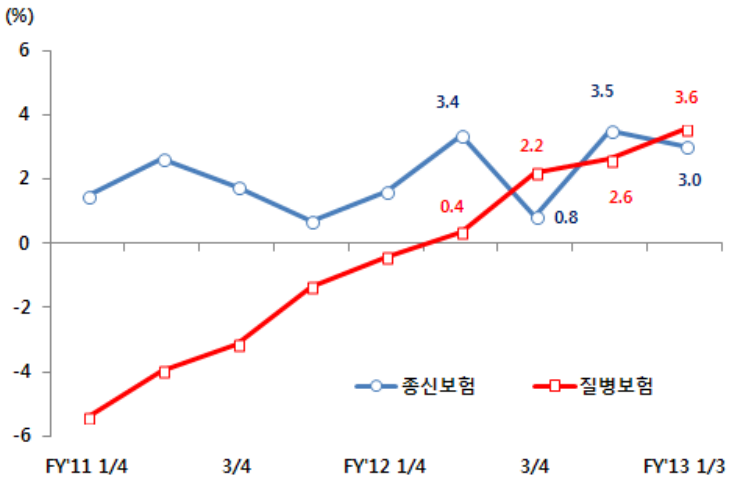
주: 농협생명을 제외한 증가율임.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.

24) 2014(F)는 2014년 1월~2014년 12월까지의 실적임.

○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12 4/4분기 3%대의 증가율을 회복한 이후 FY2013 1/3분기에도 3.7% 성장하였으며, 특히 초회보험료는 각각 28.5%, 11.8%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.

○ 종신보험 수입보험료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, 질병보험 수입보험료는 암보험 신상품 출시 확대로 FY2012 2/4분기 이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됨.

〈그림 Ⅲ-3〉 보장성보험 종목별 성장률 추이



주: 농협생명을 제외한 증가율임.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.

■ 2014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한 보장성보험 수요 창출 노력이 강화되고 계속보험료도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4.3%의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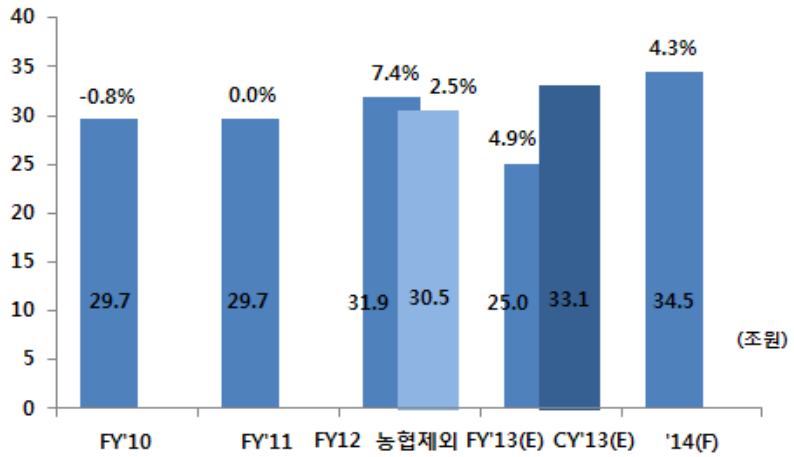
○ FY2012 세제개편으로 인한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급증으로 저축성보험 쏠림현상이 확대되면서 상품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한 보장성보험 신상품 출시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.

– 특히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고 소비자의 니즈가 확대되고 있는 암보험 판매가 확대되고 있으며, 온라인 보험의 등장으로 정기보

험과 같이 상품구조가 단순한 보장성보험의 판매 증가도 예상됨.

○ FY2013 초회보험료 증가에 따른 계속보험료 유입도 2014년 보장성보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.

〈그림 Ⅲ-4〉 보장성보험 성장률과 수입보험료 전망



주: 1) FY'11실적에는 농협생명보험 실적이 제외됨.
2) FY'13(E)는 2013년 4월 ~ 2013년 12월 실적이고 '14(F)는 2014년 1월 ~ 2014년 12월까지의 실적임.
3) CY'13(E)는 2013년 1월 ~ 2013년 12월 실적임.

■ 그러나 경기회복이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4년 보장성보험의 고성장 가능성은 제한적임.

2) 저축성보험(생사혼합 · 생존 · 변액연금 · 변액유니버셜) 현황과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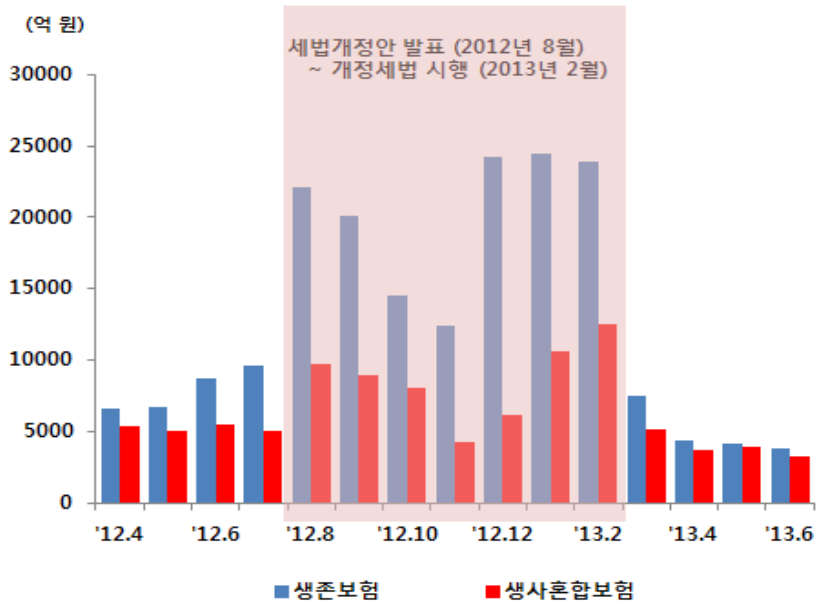
■ FY2013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세제개편에 따른 FY2012의 일시적인 일반저축성보험 수요 급증에 의한 기저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-8.4%의 성장이 예상됨.

○ FY2013 1/3분기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생존보험이 즉시연금의 기저효과로 큰 폭 마이너스 성장하고 생사혼합보험과 변액보험 성장률도 둔화되

면서 2.5% 감소함.

- 즉시연금 세제혜택 축소가 포함된 소득세법시행령이 2013년 2월 15일 발효되면서 3월 이후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, FY2013 1/3분기 초회보험료는 40% 이상 감소함.
- 변액보험의 경우 2013년 3월 2,000포인트를 상회하던 주가지수가 2013년 6월 1,800포인트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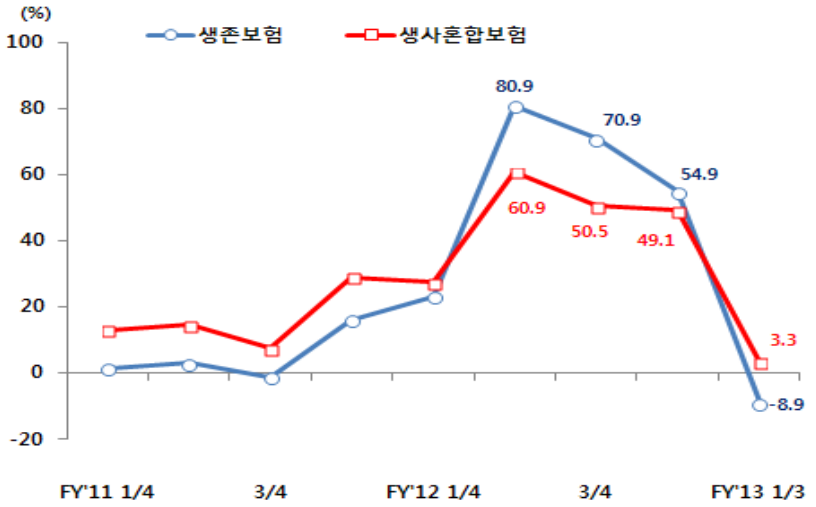
〈그림 Ⅲ-5〉 일반저축성보험 월별 초회보험료 추이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.

○ FY2013 하반기부터는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기저효과가 본격화되면서 큰 폭의 수입보험료 감소가 예상됨.

〈그림 Ⅲ-6〉 일반저축성보험 성장률 추이



주: 농협생명을 제외한 증가율임.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.

■ FY2013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기저효과로 인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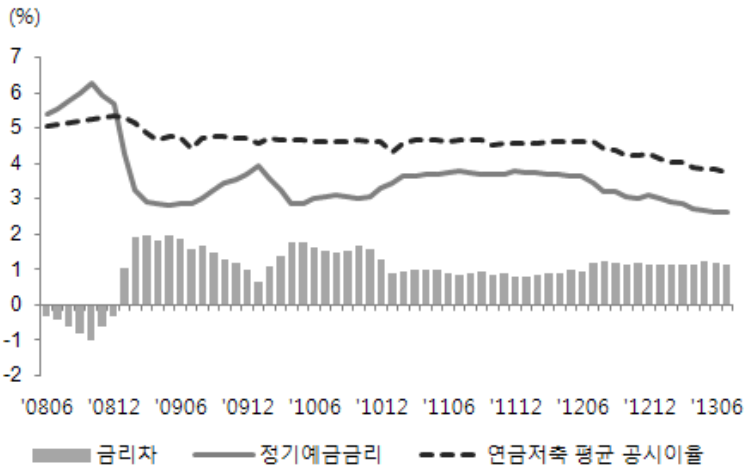
○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2012년 8월부터 개정세법이 시행된 2013년 2월까지 즉시연금을 중심으로 급증세를 보였으며,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2013년 8월부터 본격화될 것임.

– FY2012 1/4분기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되기 전이었으나 수입보험료 급증 이후 수요공백 현상으로 FY2013 1/3분기에도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.

○ 생사혼합보험 또한 생존보험과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나 공시이율이 예적금 상품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며, 저금리 환경으로 세제혜택이 부각되면서 생존보험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임.

– 저금리 환경이 지속될수록 저축성보험의 세제혜택이 부각되면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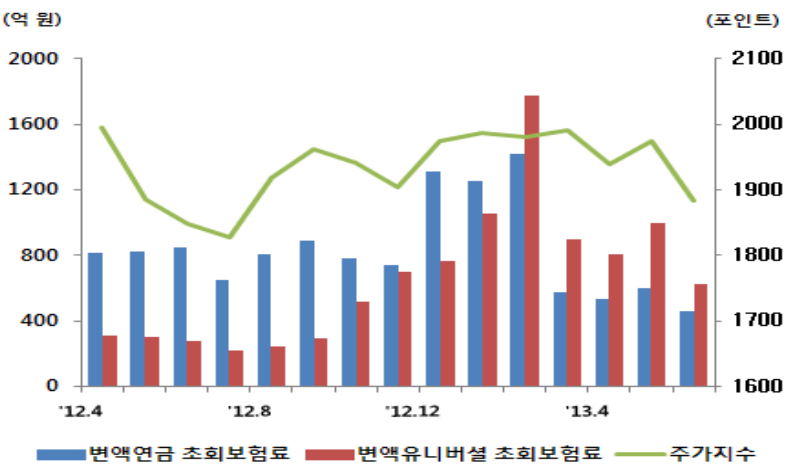
〈그림 Ⅲ-7〉 연금저축 평균 공시이율 추이



주: 정기예금금리는 가중평균 금리임.
자료: 한국은행, 생명보험협회.

■ FY2013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.

〈그림 Ⅲ-8〉 변액저축성보험 월별 초회보험료 추이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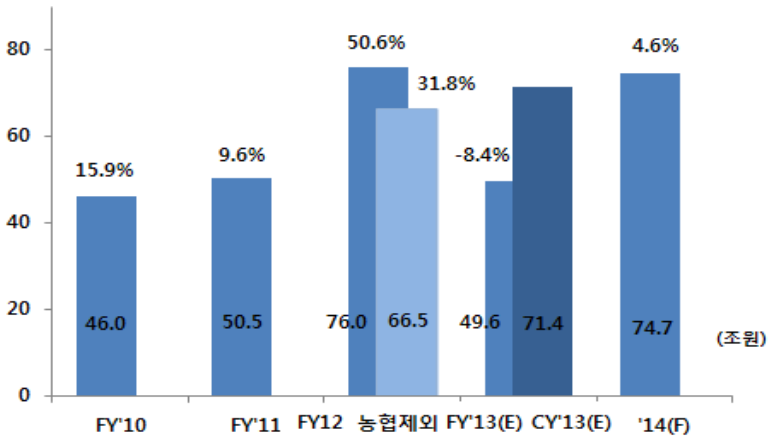
○ 최근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주가상승기에도 수요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, FY2013 하반기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변액저축성보험 수요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.

■ 2014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기저효과 소멸, 저금리 환경 지속, 상대적 비과세 혜택 부각, 노후소득 관심 확대 등으로 일반저축성보험 수요가 유지되고 금융시장 안정으로 변액보험도 성장하면서 4.6% 성장이 전망됨.

○ 2014년에는 FY2013에 작용한 일반저축성보험의 기저효과가 소멸되면서 과거 수준의 성장세 회복이 예상됨.

– 한편 개정세법이 시행되기 전인 1월과 2월 사이에는 기저효과가 여전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.

〈그림 Ⅲ–9〉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



주: 1) FY'11실적에는 농협생명보험 실적이 제외됨.
2) FY'13(E)는 2013년 4월 ~ 2013년 12월 실적이고 '14(F)는 2014년 1월 ~ 2014년 12월까지의 실적임.
3) CY'13(E)는 2013년 1월 ~ 2013년 12월 실적임.

○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,000만 원에서 2,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비과세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, 2014년에도 낮은 시중

금리가 유지되면서 상대적인 금리 경쟁력도 유지될 것임.

○ 변액저축성보험은 경기회복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FY2013에 비해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보임.

○ 그러나 여전히 낮은 경제성장률,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가계의 저축여력이 감소하는 점은 저축성보험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임.

〈표 Ⅲ-1〉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성장 전망

(단위: 억 원, %)

구분	FY2011		FY2012		FY2013(E)		2014(F)	
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
보장성	297,243	0.0	319,188	7.4	249,599	4.9	345,067	4.3
저축성	504,609	9.6	759,741	50.6	496,020	-8.4	747,184	4.6
개인계	801,852	5.9	1,078,929	34.6	745,619	-4.3	1,092,251	4.5

주: 1) 보험연구원 추정치(E) 및 전망치(F)임.
2) 보장성보험은 변액종신 포함, 저축성보험은 변액연금, 변액유니버셜 포함.
3) FY'11실적에는 농협생명보험 실적이 제외됨.
4) FY'13(E)는 2013년 4월~12월 실적이고, 2012년 4월~12월 실적과 비교함.
5) 2014(F)는 2014년 1월~12월 실적이고, 2013년 1월~12월 실적과 비교함.

나. 단체보험 현황과 전망

■ FY2013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 마무리로 퇴직연금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3.3%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.

○ FY2013 1/3분기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이 마무리 되면서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단체보험은 이례적인 고성장을 기록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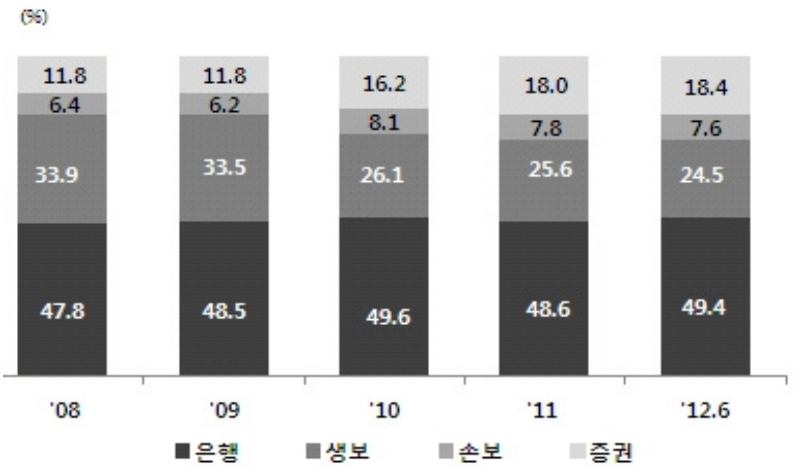
○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으로 고성장을 나타내왔으나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전환이 마무리되면서 FY2012에는 소폭 감소함.

○ 2012년 7월부터 『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』이 시행되었으나 소규모 사업장

이나 IRP 시장 확대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.

■ 생명보험의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나 2010년 이후에는 감소폭이 둔화됨.

〈그림 Ⅲ-10〉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 추이



자료: 금융감독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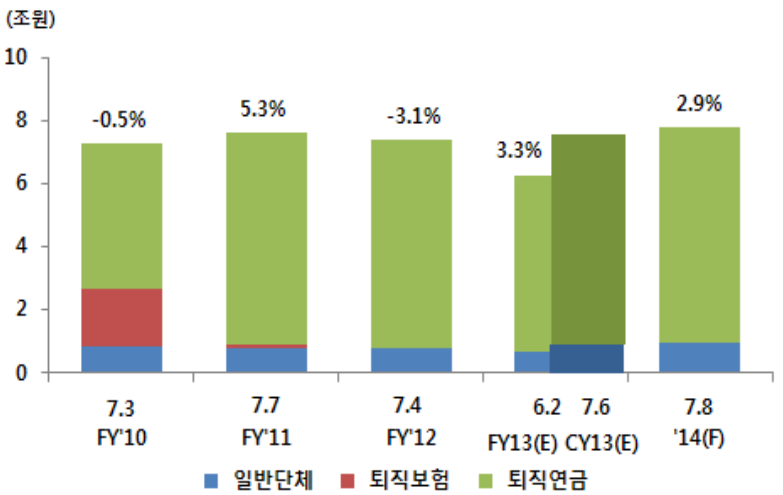
■ 2014년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단체보험과 퇴직연금 성장요인 부재로 2.9% 성장에 그칠 전망임.

○ 2014년 퇴직연금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고 소규모 사업장 및 IRP시장 확대도 여의치 않은 등 성장요인이 부재한 상황임.

○ 2014년 예정된 퇴직연금 활성화 정책도 크게 부각되는 것이 없어 보이며, 경제저성장으로 인한 고용시장 정체와 제한적인 임금 상승률 등도 퇴직연금 시장 확대에 부정적임.

○ 생명보험의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기존 계약의 이동수요 확대도 여의치 않은 모습임.

〈그림 Ⅲ-11〉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



주: 1) FY'13(E)는 2013년 4월 ~ 2013년 12월 실적이고 '14(F)는 2014년 1월 ~ 2014년 12월까지의 실적임.
2) CY'13(E)는 2013년 1월 ~ 2013년 12월 실적임.

다. 생명보험 종합

■ FY201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 수입보험료가 감소하고 단체보험이 저성장하면서 전체적으로 3.8%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.

○ 개인보험은 보장성보험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저축성보험의 기저효과가 큰 폭으로 발생하면서 4.3%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.

○ 단체보험은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 마무리로 퇴직연금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3.3%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.

■ 2014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단체보험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보장성보험이 과거 대비 양호한 성장을 이어가고 저축성보험 성장세의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FY2013에 비해 8.2%p 상승한 4.4% 증가가 전망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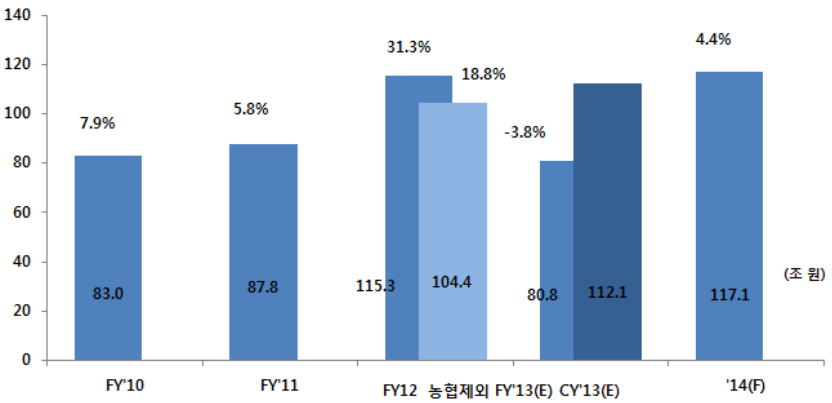
○ 개인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이 양호한 성장을 지속하고 저축성보험의 기저효과도 소멸되면서 4.5%의 증가가 전망됨.

○ 보장성보험은 보험회사의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한 보장성보험 수요 창출 노력, 계속보험료의 지속적 유입 등으로 4.3%의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.

○ 일반저축성보험은 FY2013에 작용한 기저효과가 소멸되면서 과거 수준의 성장세 회복이 예상되며, 변액저축성보험은 경기회복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보임.

○ 단체보험의 경우 일반단체보험과 퇴직연금 성장요인 부재로 2.9% 성장에 그칠 전망임.

〈그림 Ⅲ-12〉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



주: 1) FY'11실적에는 농협생명보험 실적이 제외됨.
2) FY'13(E)는 2013년 4월 ~ 2013년 12월 실적이고 '14(F)는 2014년 1월 ~ 2014년 12월까지의 실적임.
3) CY'13(E)는 2013년 1월 ~ 2013년 12월 실적임.

〈표 Ⅲ-2〉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종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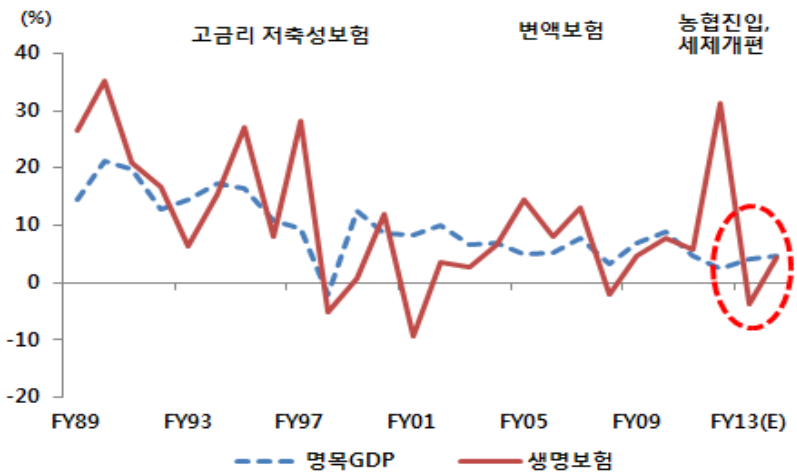
(단위: 억 원, %)

종목	FY2011		FY2012		FY2013(E)		2014(F)	
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
개인	801,852	5.9	1,078,929	34.6	745,619	-4.3	1,092,251	4.5
단체	76,508	5.3	74,156	-3.1	62,356	3.3	78,318	2.9
합계	878,360	5.8	1,153,086	31.3	807,975	-3.8	1,170,569	4.4

주: 1) 보험연구원 추정치(E) 및 전망치(F)임.
2) 보장성보험은 변액종신 포함, 저축성보험은 변액연금, 변액유니버셜 포함.
3) FY'11실적에는 농협생명보험 실적이 제외됨.
4) FY'13(E)는 2013년 4월~12월 실적이고, 2012년 4월~12월 실적과 비교함.
5) 2014(F)는 2014년 1월~12월 실적이고, 2013년 1월~12월 실적과 비교함.

■ FY2013 생명보험 성장률은 기저효과로 인해 명목 경제성장률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4년에는 명목 경제성장률 보다 소폭 낮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.

〈그림 Ⅲ-13〉 명목 GDP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추이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, 한국은행.

■ 한편 이러한 전망에는 몇 가지 위험요인이 존재함.

○ 첫째, 보장성 보험의 경우 2014년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신상품 수요가 지속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.

○ 둘째, 2014년에도 시중금리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자산운용 어려움은 저축성보험 규모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.

○ 셋째,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변액저축성보험 시장의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음.

○ 넷째, 퇴직연금의 경우 신규수요 창출 한계로 저성장이 불가피하며 업권간 경쟁 심화로 이러한 저성장세에도 불확실성이 존재함.

2. 손해보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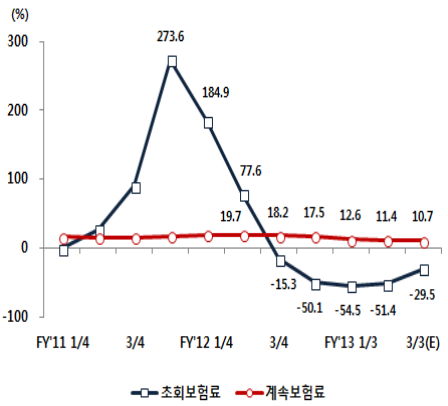
가. 장기손해보험

■ FY2013[25]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감소로 계속보험료 중심의 5.8% 증가가 예상되며, 두 자릿수의 고성장 흐름이 한 자릿수 성장으로 둔화될 것임.

○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는 FY2012 세제개편[26]에 힘입은 고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로 -3.1%의 역성장이 예상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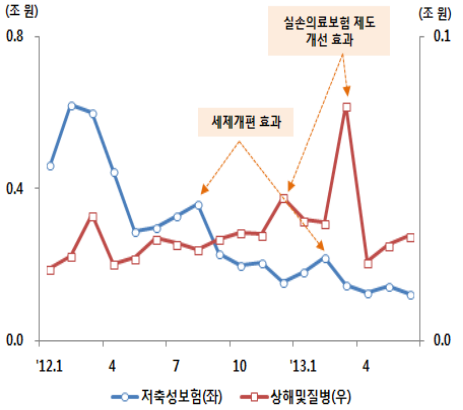
– 2012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세제혜택이 축소되기 이전에 가입을 원하는 일시납 저축성보험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세제개편 시행 이후인 2013년 4월부터 기저효과로 신규수요가 급감하기 시작함.

〈그림 Ⅲ-14〉 장기 초회/계속보험료 증가율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.

〈그림 Ⅲ-15〉 저축성/상해 · 질병 초회보험료(월별)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.

25) FY2013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이며, 증가율은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적 대비 수치임.

26) 2012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의하여 2013년부터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됨.

○ 상해 · 질병보험의 경우 FY2012 급증하였던 신규가입 계약[27]에 대한 계속보험료 유입과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[28]의 본격적인 출시 효과 등으로 15.3%의 양호한 증가율을 보일 것임.

○ 재물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종합적 위험 관리 상품[29] 출시 효과로 급증하였던 초회보험료가 감소하여 증가율이 2.0%로 낮아질 것임.

■ 2014년[30]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계속보험료의 꾸준한 유입에도 불구하고 고성장을 견인하였던 저축성보험의 신규판매 증가세 둔화로 7.4% 증가에 그칠 전망임.

○ 저축성보험의 경우 저금리 환경에서 다른 저축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여전히 금리경쟁력은 존재할 것이나 이전과 같은 신규수요 급증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4.6%의 제한적인 성장이 예상됨.

○ 상해 · 질병보험 원수보험료는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계속보험료의 안정적인 유입도 예상되어 12.2% 증가가 전망됨.

○ 재물보험 원수보험료는 종합적 위험 관리 상품의 출시 효과가 약화된 이후 뚜렷한 성장 동력이 존재하지 않아 3.3%의 저성장이 예상됨.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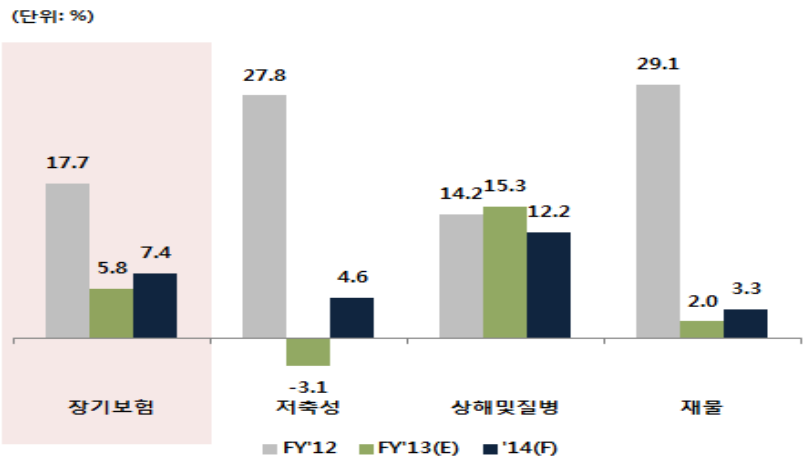
27) 개선된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2013년부터 시행되었으며, FY2012에 제도개선이 반영되기 전 상품에 가입을 원하는 수요가 급증하였음.

28) 기존 다른 상품에 특약 형태로 부가 및 판매되었던 기존 실손의료보험과는 달리 실손의료보험만을 주계약으로 단독 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말하며,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.

29) 재물과 관련한 다양한 위험(예: 화재, 배상책임, 상해 등)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상품임.

30) 2014년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이며, 증가율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 대비 수치임.

〈그림 Ⅲ-16〉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



주: FY2013(E)는 2013년 4월 ~ 2013년 12월 실적이고, 2014(F)는 2014년 1월 ~ 2014년 12월까지 실적임.

〈표 Ⅲ-3〉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

(단위: 억 원, %)

종목	FY2011[1]		FY2012		FY2013(E)[2]		2014(F)[2]	
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
저축성	97,465	55.8	124,559	27.8	90,400	-3.1	127,235	4.6
상해 · 질병	146,045	11.4	166,786	14.2	141,327	15.3	208,153	12.2
재물	28,993	33.1	37,429	29.1	28,725	2.0	39,226	3.3
기타[3]	68,929	3.9	73,122	6.1	55,745	1.8	75,619	2.1
장기손보	341,432	21.2	401,896	17.7	316,197	5.8	450,233	7.4

주: 1) FY2011실적에는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제외됨.
2) FY2013(E)는 2013년 4월 ~ 2013년 12월 실적이고, 2014(F)는 2014년 1월 ~ 2014년 12월까지 실적임.
3) 기타에는 운전자, 통합형, 자산연계형이 포함됨.

나. 연금부문(개인 및 퇴직연금)

■ FY2013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둔화되고 퇴직연금도 저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4.2% 증가가 예상됨.

○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연금저축[31]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 효과가 약화됨에 따라 신규수요가 감소하여 6.1% 증가가 예상됨.

– 2011년 1월부터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어 2011년과 2012년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개인연금의 신규수요가 급증한 바 있음.

○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단계적 축소,[32] 보험설계사의 퇴직연금 모집 허용[33] 등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전환수요 소진[34] 이후 신규수요 창출이 어려워 2.2%의 저성장이 예상됨.

–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소규모 사업장[35]을 대상으로 또는 다른 퇴직연금의 계약이전을 통하여 신규가입을 유도해야 함.

31)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을 의미하며, 손해보험의 개인연금이 연금저축에 포함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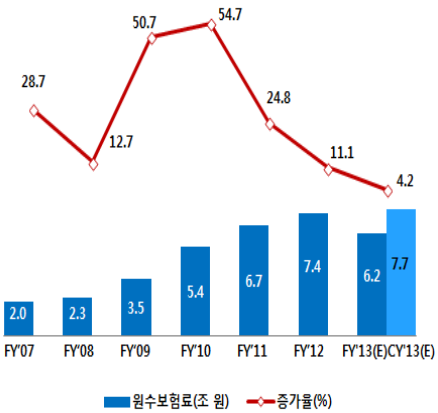
32) 손금으로 인정되는 사내적립 퇴직급여충당금이 매년 5%씩 축소되어 2016년까지 완전히 폐지됨(2013년 15%, 2014년 10%).

33) 「근퇴법」 개정으로 2012년 7월부터 보험설계사의 퇴직연금 모집이 가능해졌음.

34) 2012년 말 5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86.5%로 추정(금감원 보도자료)되는 등 대기업의 퇴직연금 전환이 마무리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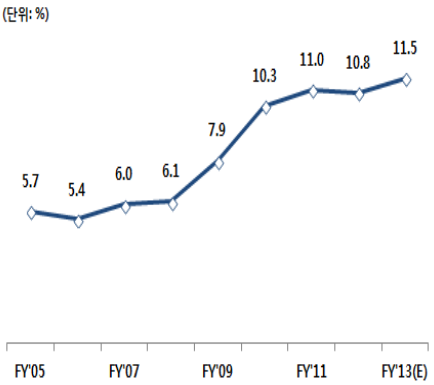
35)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FY2010 5.7%, FY2011 8.1%, FY2012 12.1%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(자료: 금감원 보도자료).

〈그림 Ⅲ-17〉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및 증가율



주: 개인 및 퇴직연금, 퇴직보험을 포함.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.

〈그림 Ⅲ-18〉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비중



주: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에서 연금부문이 차지하는 점유율임.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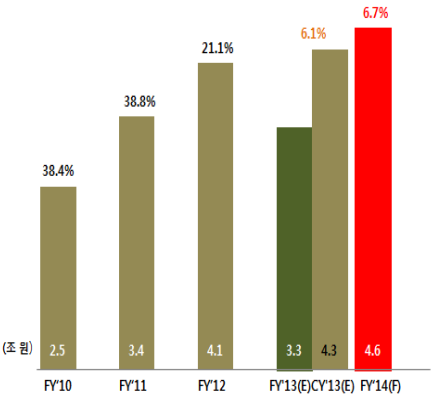
■ 2014년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계속보험료의 완만한 증가세로 FY2013에 비해서 0.9%p 상승한 5.1%가 될 것으로 전망됨.

○ 개인연금은 다른 소득공제혜택이 줄어들고 있어[36] 상대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의 장점이 부각될 것이나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 상향 조정 효과가 약화되고 있어 6.7% 증가에 그칠 전망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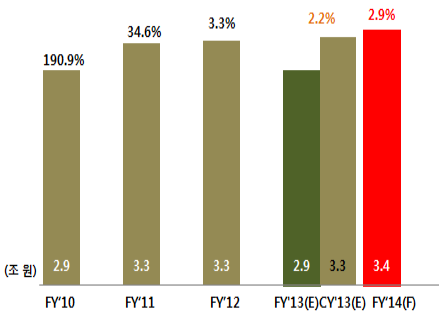
○ 퇴직연금은 가입률이 낮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판매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나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며, 또한 퇴직연금 사업자들 간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2.9%의 저성장을 지속할 것임.

36) 2012년 12월 31일「조세제한특례법」하에서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혜택이 종료되었으며, 2013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20%에서 15%로 축소되었으며 2014년 10%가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.

〈그림 Ⅲ-19〉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전망



〈그림 Ⅲ-20〉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전망



주: 1) FY2011실적에는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제외됨.
2) FY2013(E)는 2013년 4월 ~ 2013년 12월 실적이고, 2014(F)는 2014년 1월 ~ 2014년 12월까지 실적임.
3) CY2013(E)는 2013년 1월 ~ 2013년 12월 실적임.

〈표 Ⅲ-4〉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전망

(단위: 억 원, %)

종목	FY2011[1]		FY2012		FY2013(E)[2]		2014(F)[2]	
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
개인연금	34,273	38.8	41,489	21.1	32,755	6.1	46,294	6.7
퇴직연금	31,791	34.6	32,840	3.3	28,983	2.2	34,432	2.9
합계[3]	66,900	24.8	74,337	11.1	61,741	4.2	80,726	5.1

주: 1) FY2011실적에는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제외됨.
2) FY2013(E)는 2013년 4월 ~ 2013년 12월 실적이고, 2014(F)는 2014년 1월 ~ 2014년 12월까지 실적임.
3) 퇴직보험 실적이 포함된 수치임.

다. 자동차보험

■ FY2013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할인형 상품[37] 확대에 따른 대당보험료 감소 추세가 계속되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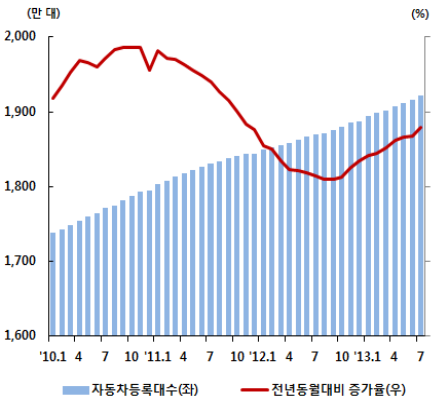
37) 주행거리 연동특약, 블랙박스 할인 특약,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등 보험료 할인을 제

1.2%의 저성장이 예상됨.

○ 2012년 경기둔화로 감소세를 보였던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이 기저효과 등으로 2013년 들어서면서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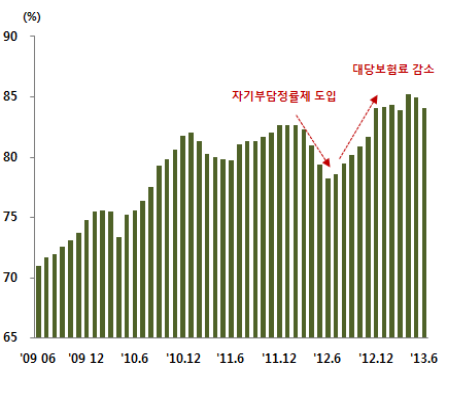
○ 2012년 이루어진 기본 보험료 인하 효과는 이미 반영되었으나 사고자 특별 할증률 인하, 주행거리 연동특약 및 블랙박스 할인특약 확대,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 등 대당보험료 감소 요인은 여전히 존재함.

〈그림 Ⅲ-21〉 자동차 등록대수 및 증가율



자료: 국토해양부.

〈그림 Ⅲ-22〉 자동차보험 월별 경과손해율



자료: 보험개발원, 『보험통계월보』, 각 월호.

○ 높은 수준의 손해율 지속과 원수보험료 증가세 둔화 등으로 자동차보험 산업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나 서민 경제와 연관성이 큰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인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음.

– 자기부담 정률제 도입 등으로 하락하였던 자동차보험 손해율[38]이 대당보험료 감소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.

공하는 상품을 의미함.

38) 손해율 = 발생손해액 / 경과보험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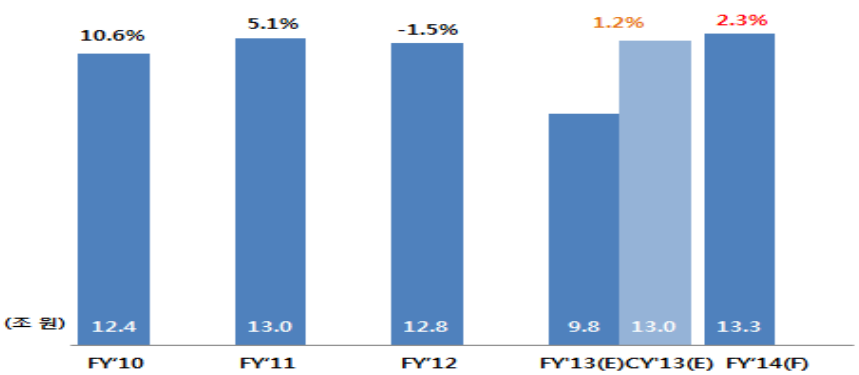
■ 2014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할인형 상품 확대 지속과 보험료 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증가율은 2.3%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.

○ 자동차 내수 시장이 소폭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큰 폭의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움.

○ 2014년에도 주행거리 연동특약과 블랙박스 할인특약 확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, 온라인 판매채널의 지속적인 확대도 전망됨.

○ 자동차보험 산업의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물량요인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의존한 낮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임.

〈그림 Ⅲ-23〉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



주: 1) FY2011실적에는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제외됨.
2) FY2013(E)는 2013년 4월 ~ 2013년 12월 실적이고, 2014(F)는 2014년 1월 ~ 2014년 12월까지 실적임.
3) CY2013(E)는 2013년 1월 ~ 2013년 12월 실적임.

〈표 Ⅲ-5〉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

(단위: 억 원, %)

종목	FY2011[1]		FY2012		FY2013(E)[2]		2014(F)[2]	
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
자동차	130,415	5.1	128,416	-1.5	98,244	1.2	132,621	2.3

주: 1) FY2011실적에는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제외됨.
2) FY2013(E)는 2013년 4월 ~ 2013년 12월 실적이고, 2014(F)는 2014년 1월 ~ 2014년 12월까지 실적임.

라. 일반손해보험

■ FY2013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화재, 해상, 보증보험 마이너스 성장과 특종보험 증가세 둔화로 4.2%의 저성장이 예상됨.

○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「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」시행[39]으로 의무가입 수요는 확대되었으나 특종보험 종합보험과 장기 재물보험으로 수요가 분산되고 건설경기 침체도 지속되어 0.4% 감소할 것임.

○ 해상보험의 경우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적하보험과 선박보험이 역성장함에 따라 3.5% 감소가 예상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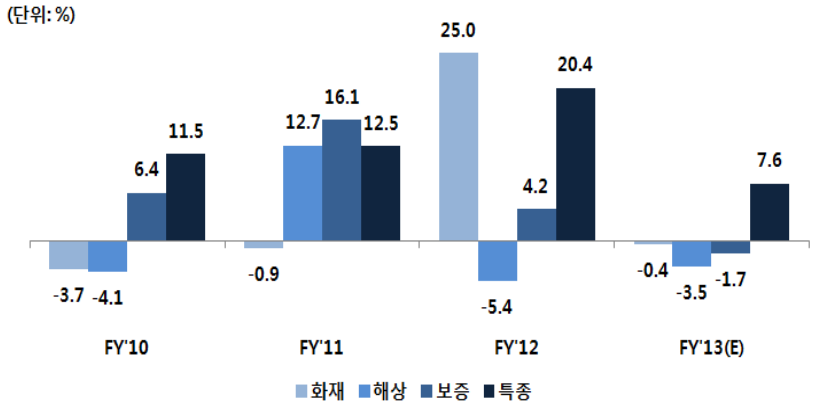
○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건설경기 부진과 보험료 조정 등에 따른 이행 보증보험 저성장과 통신요금 관련 신용 보증보험 증가세 둔화로 1.7% 감소가 예상됨.

○ 특종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기술보험 부진에도 불구하고 종합보험 및 기타 특종보험이 양호한 실적을 나타냄에 따라 7.6% 증가가 예상됨.

– 기술보험은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11.0%의 감소, 종합보험은 기업성 물건을 중심으로 12.9% 증가, 기타 특종보험은 휴대폰 관련 보험 중심으로 8.4% 증가가 예상됨.

39) 2013년 3월「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」시행으로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, 기존 다중이용업주들은 2013년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하여야 함.

〈그림 Ⅲ-24〉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



주: 1) FY2011실적에는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제외됨.
2) FY2013(E)는 2013년 4월 ~ 2013년 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임.

■ 2014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소폭의 경기회복세에 힘입은 특종보험 중심의 증가세가 예상되나 증가율은 6.2%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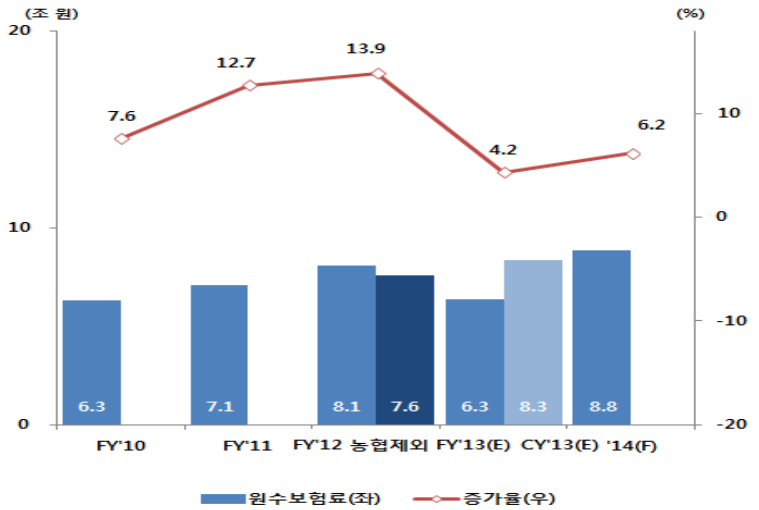
○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의무가입 대상 확대 효과가 약화되고 다른 보험으로의 물건이탈 추세도 지속되면서 0.1% 증가가 전망됨.

○ 해상보험의 경우 전년도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수출입 물동량 증가 등에 힘입어 6.8% 증가가 전망됨.

○ 보증보험의 경우 전년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율이 6.1%로 높아질 것이나 통신요금 관련 신용 보증보험 실적 둔화와 건설경기 둔화에 따른 이행 보증보험 시장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.

○ 특종보험 원수보험료는 상해보험, 종합보험, 기타 특종보험의 양호한 성장세로 6.4% 증가가 전망되나 증가율은 FY2013 7.6%에 비하여 1.2%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.

〈그림 Ⅲ-25〉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



주: 1) FY2011실적에는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제외됨.
2) FY2013(E)는 2013년 4월 ~ 2013년 12월 실적이고, 2014(F)는 2014년 1월 ~ 2014년 12월까지 실적임.
3) CY2013(E)는 2013년 1월 ~ 2013년 12월 실적임.

〈표 Ⅲ-6〉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

(단위: 억 원, %)

종목	FY2011[1]		FY2012		FY2013(E)[2]		2014(F)[2]	
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
화재	2,636	-0.9	3,293	25.0	2,475	-0.4	3,286	0.1
해상	8,699	12.7	8,230	-5.4	6,501	-3.5	8,538	6.8
보증	15,172	16.1	15,816	4.2	11,600	-1.7	16,566	6.1
특종[3]	44,394	12.5	53,433	20.4	42,789	7.6	60,096	6.4
합계	70,901	12.7	80,773	13.9	63,365	4.2	88,486	6.2

주: 1) FY2011실적에는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제외됨.
2) FY2013(E)는 2013년 4월 ~ 2013년 12월 실적이고, 2014(F)는 2014년 1월 ~ 2014년 12월까지 실적임.
3)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, 부수사업, 권원보험이 포함됨.

마. 손해보험 종합

■ FY201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 저성장 지속과 장기손해보험, 연금부문, 일반손해보험의 증가세 둔화로 4.6% 증가가 예상됨.

○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세제개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세제혜택 축소로 일시납 보험료 중심의 장기 저축성보험 급증세가 크게 둔화될 것이며, 증가율이 5.8%로 낮아질 것임.

○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연금저축 소득공제의 400만 원 상향조정 효과가 약화되어 6.1% 증가에 그칠 것이며,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퇴직연금 전환수요 소진 이후 신규수요 창출이 어려워 2.2% 증가할 것임.

○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의 증가 추세가 계속되어 1.2%의 저성장을 기록할 것임.

○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경기둔화로 화재, 해상, 보증보험이 역성장하고 특종보험 증가세도 둔화되어 4.2% 증가가 예상됨.

■ 2014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장기손해보험과 개인연금의 제한적인 증가세와 자동차보험과 퇴직연금 부진 등으로 6.1%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.

○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꾸준한 계속보험료 유입에 힘입은 상해 및 질병보험 증가세가 예상되나 고성장을 견인하였던 저축성보험 증가세가 둔화되어 7.4% 증가가 전망됨.

○ 개인연금은 다른 소득공제혜택이 줄어들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으나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상향조정 효과가 약화되고 있어 6.7% 증가가 예상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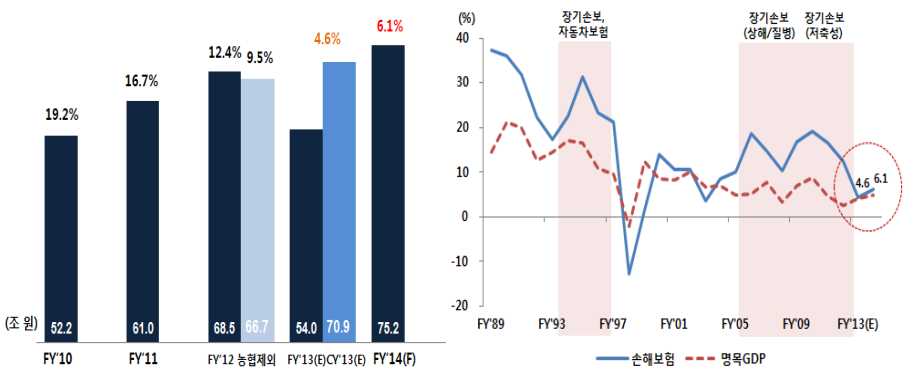
○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퇴직연금 전환이 마무리 된 이후 계속보험료를 중심으로 2.9%의 저성장을 지속할 것임.

○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되나 할인형 상품 증가에 따른 대당보험료 감소세와 보험료 인상의 어려움으로 2.3% 증가가 전망됨.

○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특종보험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전년도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해상 및 보증보험이 소폭 회복세를 보일 것이나 증가폭이 크지 않아 6.2% 증가가 예상됨.

■ FY2004 이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명목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FY2013과 2014년 증가율은 장기성보험[40]의 성장동력 약화로 명목 경제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.

〈그림 Ⅲ-26〉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및 명목 경제성장률 전망



주: 1) FY2011실적에는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제외됨.
2) FY2013(E)는 2013년 4월 ~ 2013년 12월 실적이고, 2014(F)는 2014년 1월 ~ 2014년 12월까지 실적임.
3) CY2013(E)는 2013년 1월 ~ 2013년 12월 실적임.

40) 장기손해보험과 연금부문을 말함.

〈표 Ⅲ-7〉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

(단위: 억 원, %)

종목	FY2011[1]		FY2012		FY2013(E)[2]		2014(F)[2]	
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
장기손보	341,432	21.2	401,896	17.7	316,197	5.8	450,233	7.4
저축성	97,465	55.8	124,559	27.8	90,400	-3.1	127,235	4.6
상해·질병	146,045	11.4	166,786	14.2	141,327	15.3	208,153	12.2
재물	28,993	33.1	37,429	29.1	28,725	2.0	39,226	3.3
기타[3]	68,929	3.9	73,122	6.1	55,745	1.8	75,619	2.1
연금부문	66,900	24.8	74,337	11.1	61,741	4.2	80,726	5.1
개인연금	34,273	38.8	41,489	21.1	32,755	6.1	46,294	6.7
퇴직보험	835	-84.2	9	-	3	-	-	-
퇴직연금	31,791	34.6	32,840	3.3	28,983	2.2	34,432	2.9
자동차	130,415	5.1	128,416	-1.5	98,244	1.2	132,621	2.3
일반손보	70,901	12.7	80,773	13.9	63,365	4.2	88,486	6.2
화재	2,636	-0.9	3,293	25.0	2,475	-0.4	3,286	0.1
해상	8,699	12.7	8,230	-5.4	6,501	-3.5	8,538	6.8
보증	15,172	16.1	15,816	4.2	11,600	-1.7	16,566	6.1
특종[4]	44,394	12.5	53,433	20.4	42,789	7.6	60,096	6.4
전체	609,648	16.7	685,422	12.4	539,547	4.6	752,065	6.1

주: 1) FY2011실적에는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제외됨.
2) FY2013(E)는 2013년 4월 ~ 2013년 12월 실적이고, 2014(F)는 2014년 1월 ~ 2014년 12월까지 실적임.
3) 기타에는 운전자, 통합형, 자산연계형이 포함됨.
4)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, 부수사업, 권원보험이 포함됨.

3. 보험산업 종합

■ 2014년 보험산업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성장률이 모두 명목경제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5.0%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.

〈표 Ⅲ-8〉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

(단위: 조 원, %)

구분	FY2011		FY2012		FY2013(E)		2014(F)	
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
생명보험	87.8	5.8	115.3	31.3	80.8	-3.8	117.1	4.4
손해보험	61.0	16.7	68.5	12.4	54.0	4.6	75.2	6.1
전체	148.8	10.0	183.9	23.6	134.8	-0.6	192.3	5.0

주: 보험연구원 추정치(E) 및 전망치(F)임.

■ 2014년 보험침투도(insurance penetration)[41](총보험료/명목GDP)는 명목GDP 성장률 둔화가 전망됨에 따라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명목GDP 성장률을 상회하면서 13.9% 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.

○ 생명보험 침투도는 FY2013보다 0.5%p 상승한 8.5%, 손해보험 침투도는 0.1%p 상승한 5.4%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.

〈표 Ⅲ-9〉 보험침투도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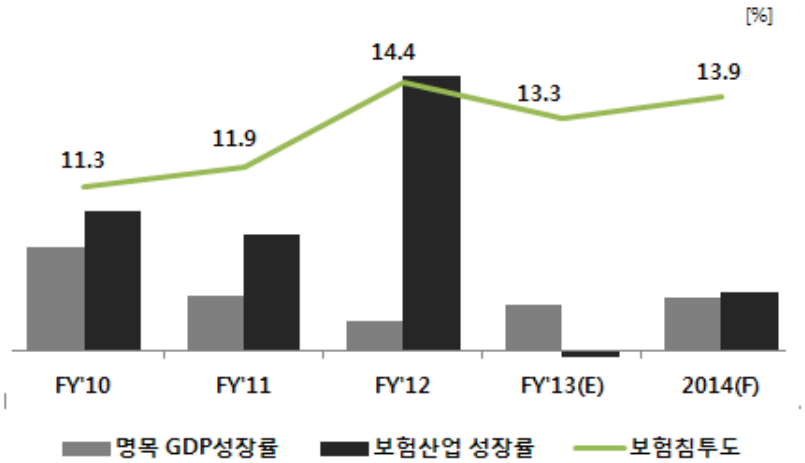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구분	FY2010	FY2011	FY2012	FY2013(E)	2014(F)
생명보험	7.0	7.0	9.0	8.0	8.5
손해보험	4.4	4.9	5.4	5.3	5.4
전체	11.3	11.9	14.4	13.3	13.9

주: 보험침투도 = 총보험료 / 명목GDP

41) 보험침투도는 명목GDP 대비 수입보험료의 비율을 가리키는데, 이는 한 국가의 보험산업이 동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하게 하는 수치임.

〈그림 Ⅲ-27〉 보험침투도 추이 및 전망



주: 농협보험을 포함함.

■ 2014년 보험밀도(insurance density)[42](총보험료/총인구수)는 381만 3,000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○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밀도는 각각 232만 2,000원, 149만 2,000원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.

〈표 Ⅲ-10〉 보험밀도 전망

(단위: 천 원)

구분	FY2010	FY2011	FY2012	FY2013(E)	2014(F)
생명보험	1,679.8	1,764.5	2,306.0	1,608.9	2,321.5
손해보험	1,056.5	1,224.7	1,370.7	1,074.4	1,491.5
전체	2,736.3	2,989.2	3,676.7	2,683.3	3,812.9

주: 1) 보험밀도 = 총보험료 / 총인구수
2) 인구는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 2013년 12월 자료를 사용함.

42) 국민 1인당 보험료를 나타내는 보험밀도는 해당 국가의 보험 보급 및 보험산업 발전수준을 알려주는 지표임.